

바다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 국내 정착의 길 열려

- 법무부, 특별공로 인정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지난 8월 21일 안정적으로 국내 거주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은 '22년 4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하여 선장과 함께 구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26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를 인정하여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에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향숙 (02-2110-4055)
		담당자	사무관 김진겸 (02-2110-4067)